

전 남

장흥 득량만 낙지 황금어장 부상

무산김 양식·통발 그물코 22mm 이하 제한 노력 효과 700여 어가 연 2000t 잡아 올려... 지난해 300억 소득

장흥 득량만이 낙지잡이 전국 최대 연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장흥지역 700여 어가의 연간 낙지 생산량은 자그마치 2000t.(1110만 마리). 전국 생산량 7030t의 28%, 전남 4495t의 44%를 차지, 전국에서 낙지가 가장 많이 잡히는 품어 지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장흥 득량만 연안이 낙지잡이 지역으로 알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김 양식어민들이 유기산 김에서 지난 2008년 이후 무기산 김으로 전환하면서 바다 밑 부식된 필이 살아나 어류나 연체동물 등의 먹이인 규조류 서식이 풍부해졌다. 수산 전문기관은 유기산내에 중금속(납) 성분이 무려 10%에 달해 필의 규조류 서식을 막아 생태계가 파괴돼 수산자원의 고갈 현상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에 정부가 남획 방지와 자원조성을 위해 제정한 '수산자원 관리법' 영향이 자원부식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장흥·보성·고흥지역 득량만 연안 바다수온이 예년에 비해 3~4도가 낮아 1년생 낙지가 생존할 수 있는 적정수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6만개에 달하는 어구를 폐기시켜 어민들의 처우 남획을 막았다. 득량만 연안에서 지난해부터 낙지 뿐 아니라 주꾸미·감성돔을 비롯한 어류와 그동안 뜸했던 새조개도 나타나 득량만이 다시 황금어장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장흥·보성·고흥지역 득량만 연안 바다수온이 예년에 비해 3~4도가 낮아 1년생 낙지가 생존할 수 있는 적정수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진도 조도해역 올해도 꽃게 풍어

매일 어선 35척 출어 적당 300kg 생산

진도 해역이 올해도 꽃게 풍어로 활기를 띠고 있다. 20일 진도군수협 서망사업소에 따르면 진도 조도면 독거도 해역에는 매일 35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출어, 적당 300kg 정도의 꽃게를 잡고 있다. 위판장의 꽃게 가격은 kg당 3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0~3000원 정도 올랐다. 올해 봄철 꽃게 위판량은 200t(5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박강호 서망 사업소장은 "조도 독거도 해역은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고 섭씨 14~15도의 일정한 수온, 플랑크톤 등 먹이생물이 풍부한 최적

해 2000~3000원 정도 올랐다. 올해 봄철 꽃게 위판량은 200t(5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박강호 서망 사업소장은 "조도 독거도 해역은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고 섭씨 14~15도의 일정한 수온, 플랑크톤 등 먹이생물이 풍부한 최적

의 꽃게 서식지"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봄철 꽃게가 풍어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 꽃게는 통발로 잡아 올려 그물로 잡는 다른 지역 꽃게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꽃게찜, 탕, 무침, 간장 계장 등으로 인기가 높다. 진도에서는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어기를 제외하고 연중 꽃게를 잡고 있다. 한편 진도 해역의 꽃게 어획량은 2010년 769t(97억원), 2011년 930t(142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곡성 장미마라톤대회 성료

20일 곡성군과 코레일관광개발이 공동주최한 장미 마라톤대회. 참가자 1004명은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공원에서 구례구역까지 강변을 따라 달리면서 세계 장미축제 개최를 축하했다. /중부취재본부=김계경기자 kjkim@

전남 해양레저장비산업 본격 육성

도, 95억 들여 대불산단에 공동 활용 전용건물 착공

전남도가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보트·요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으로의 업종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21일 해양레저장비 공동 활용 전용건물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서남권 해양레저장비 기반구축사업은 총 95억원을 투입해 대불국가산단에 작업장, 목가공실, 시험분석실, 입주기업실 등을 갖춘 2층 규모의 철골 건물을 신축하고, 해양레저장비 시험·생산에 필요한 고가의 자동화 장비와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선체 응집 및 의장·도장 장비

등 27종을 이미 구축 완료한 상태며 오는 8월 말 전용건물 준공과 함께 선체가공, 품질검측에 필요한 장비 등 총 44종의 장비가 완비되면 관련 기업에서는 필요한 장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서는 이 사업이 장비의 공동 사용뿐만 아니라 기술 정보 공유, 홍보마케팅, 제품 개발 기술과 전문 인력 양성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4년 기반 구축이 완료되면 이를 해양레저장비산업 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해 관련 산업을 집중화

하고 생산기술은 물론 국내·외 마케팅까지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육성해 조선 관련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내영 전남도 경제산업국장은 "전남도는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을 갖고 있으며,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조선기업이 집적화돼 해양레저장비 산업 발전의 최적지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기반 구축사업을 토대로 해양레저장비산업을 미래 신성장 유망사업으로 육성해 국제공급기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다산 제자 황상 학문세계 '한눈에'

강진군 문사고선연구소 '일속산방 길' 출간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강진 유배 시절 만년 제자인 치원 황상(1788~1870)의 학문세계를 엿볼 수 있는 서적이 간행됐다. 강진군 문사고선연구소(소장 양광식)는 황상의 '일속산방(一粟山房) 길'을 펴내고 22일 강진 신협에서 간행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산이 주막집인 사의재에서의 궁핍한 생활상, 다산의 서체가 실려 있다. 양광식 소장은 "다산제자 중에 최고이고 학문의 최고봉에 이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소홀해 간행을 시작한 '다산 이전자 애학편'(2009년)과 '치원 황상이 받은 편지'(2010년)에 이어 이번 3번째 간행이 황상 학문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간행 의미를 강조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영농철 농촌지역 점심 제공합니다

나주 '마을 공동 급식사업' 인기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나주시가 부녀화·노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농업인 마을 공동 급식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이 사업은 공동급식 여건을 갖춘 모든 마을에 급식 종사자 인건비와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 상반기에는 예산 2억6000만원을 들여 105개 마을에 2200여 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된다.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조례를 제정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사업'은 매년 농번기철인 5월에서 7월까지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사업이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형기자 chjung@

"천불천탑, 천년신비로 여행 떠나 보세요"

'화순 운주문화축제' 오는 27~28일 이틀간 개최 도암 농악 길놀이·정태춘 박은옥 산사음악회 등

천불천탑의 신비가 깃든 화순 운주사 일원에서 '천불천탑' 천년 신비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화순 운주 문화축제'가 오는 27~28일 이틀간 열린다. 화순 운주 문화축제 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위해 축제 실무위

원회를 발족해 7개 부문 40개 단위 행사로 구성 기획부터 진행까지 직접 운영키로 했다. 첫날인 27일은 도암 농악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전통 혼례, 평양 민속예술단 공연 및 가수 정태춘·박은옥을 초청,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산사 음악회가 열린다. 둘째날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법요식과 불교무용 공연 및 탑돌이, 와불 세우기, 소원탑아 품등 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수 와 비보이(B-Boy) 공연, 인생을 주제로 한 뮤지컬 갈라쇼 등의 공연도 준비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www.gjstec.or.kr

광주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G.S.T.E.C

지상 12층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광주시민을 위한 시설이며 세미나, 학회, 동창회, 가족모임 등 각종 행사가 가능합니다

행사가능시설

- 레스토랑 : 150석규모, 다양한 메뉴, 저렴한 가격
- 숙박시설 : 총 31실(양실, 한실)
- 다양한 편의시설 : 헬스클럽, 사우나
- 각종 규모의 회의실 : 10석이상 최대 130석, 가변형 등 총 450석 규모의 회의실, 5개 중소규모 회의실

※ 라마다호텔 위탁운영

GSTEC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Gwangju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학로 339 | T.062)609-0500~1 F.062)609-0521

문의 및 예약
062)609-0500~1